

5.23지방직 국어기출-유두선-(A책형)

문 1. 다음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보기>의 예를 옳게 구분한 것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보 기> —		
ㄱ. 지붕	ㄴ. 의논	ㄷ. 타향살이
ㄹ. 오세요	ㅁ. 합격률	ㅂ. 붙이다

‘소리대로 적은 원칙’에 따른 예 ‘어법에 맞도록 한 원칙’에 따른 예

- | | | |
|---|---------|---------|
| ① | ㄱ, ㄴ, ㄷ | ㄷ, ㅁ, ㅂ |
| ② | ㄱ, ㄴ, ㅁ | ㄷ, ㄹ, ㅂ |
| ③ | ㄴ, ㄷ, ㅂ | ㄱ, ㄷ, ㅁ |
| ④ | ㄷ, ㅁ, ㅂ | ㄱ, ㄴ, ㄷ |

문 2. 어문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기여하고저, 빠드렁니, 돌(‘첫 생일’), Nakdonggang(‘낙동강’)
- ② 퍼붙다, 처부수다, 수태지, Daegwallyeong(‘대관령’)
- ③ 안성마춤, 삼팽이, 더우기, 지그잭(‘zigzag’)
- ④ 고샅, 일찍이, 굼주리다, 빠리(‘Paris’)

문 3. ㉠ ~ ㉤ 중 문맥상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상은 제상을 제외하고는 판 둘레에 최소 ㉠순가락총 폭만큼의 ㉡운두가 둘러 있다. 그것은 첫째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함이요, 둘째는 거기에 걸쳐 놓은 수저를 신경 안 쓰고 집어 올려 쓸 수 있게 하려 하는 배려에서 이다. 둘레가 ㉢도두룩하게 ㉣내들리지 않고 막 꿇긴 식탁은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지기가 일쑤고, 수저 뒀을 따로 놓아야 수저를 편하게 집을 수 있다.

- | | |
|-----|-----|
| ① ㉠ | ② ㉡ |
| ③ ㉢ | ④ ㉣ |

문 4. 밑줄 친 부분의 연결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야 하는 시청 직원들은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고 있

다.

- ② 구조조정을 할 때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은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주인 의식, 곧 회사 일과 개인적인 일을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 ③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만인 쥐는 ER(형질내세망)의 스트레스가 증가한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태는 비만이 발생한 상황에서 ER이 위축되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④ 한 증권사의 담당자는 내년 초 주가지표에 대해 2,000포인트 돌파를 외치기도 하고, 다른 증권사의 담당자는 연내 초강세장의 도래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증권사도 아직은 관망을 해야할 때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 5. 밑줄 친 부분을 사자성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어젯밤 열한 시 경, 시내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김모 씨가 계산을 할 때가 되자 갑자기, “이렇게 값이 싼 것은 나를 우습게 봐서가 아니냐?”며 트집을 잡고, 설명하려던 가게 주인을 우산 꼭지로 찌르고, 유리 진열장 등을 망치로 부수다가, 달려온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는, “비싼 음식을 싹껏 먹었고 지불할 돈도 얼마든지 갖고 있는데, 요금이 너무 싸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 ① 賊反荷杖 ② 牽強附會
- ③ 小貪大失 ④ 反面教師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6 ~ 문 7]

이주노동자들이 사냥개에게 쫓기는 약한 동물들처럼 내몰리는 모습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재들은 우리 시민이 아니잖아.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같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 피부색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재들이 우리 사회를 ㉠ 타락시키고 있어.’ 한국은 동질적인 사회이고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에서는 이들의 인권이 숨 쉴 수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시민권이 없다. 시민권은 나누고 분리하는 개념이다. 세금을 낸 시민이 정부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시민권이라면 그리고 뺄셈을 잘하는 것이 시민권이라면, 인권은 포괄하고 더하는 개념이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디에서나 사람으로 ㉡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처럼 겉으로는 시민이지만 사실상 시민대접을 받지 못하는 차별받는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설계하는 게 인권의 개념이다. 시민권 개념 안에서 인권을 바라보면 창문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창문(window)의 어원은 ‘바람의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한다. 이 뜻을 따르면 창문은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자유롭게 휘젓고 다니는 바람의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게 된다. 인권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인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의무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구성원끼리 서로 ㉢ 배척하고 ㉣ 갈등을 유발하는 시민권보다 서로의 이해를 통해 통합으로 나아가는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

문 6. 밑줄 친 어휘의 한자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 ① ㉠ - 墜落 | ② ㉡ - 待遇 |
| ③ ㉢ - 排斥 | ④ ㉣ - 葛藤 |

문 7. 위의 글을 읽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① 내다보기 | - 들여다보기 |
| ② 분리의 원칙 | - 포괄의 원칙 |
| ③ 동질성 조장 | - 이질성 조장 |

④ 시민 중심의 설계 - 인권 중심의 설계

문 8.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행동 양식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도 한다. 이것을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법칙에 따르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은 여러 모로 매우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즉 사회적 증거에 따라 행동하면, 실수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 왜냐하면 다수의 행동이 옳바르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증거의 특성은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지름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맹목적으로 이를 따르게 되면 그 지름길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불로소득자들에 의해 이용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① 영희는 고속도로에서 주변의 차들과 같은 속도로 달리다가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다.
- ② 철수는 검색 우선순위에 따라 인터넷 뉴스를 본다.
- ③ 순이는 발품을 팔아 값이 가장 싼 곳에서 물건을 산다.
- ④ 명수는 여행을 가서 밥을 먹을 때 구석진 곳이라도 주차장에 차가 가장 많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문 9. 다음 글을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어느 지점부터 나누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ㅁ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끝 없이 불분명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기호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두 생각을 똑똑히 그리고 한결같이 구별하지 못하리란 것은 철학자나 언어학자나 다 같이 인정하는 바이다. 언어가 나타나기 전에는 미리 형성된 관념이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떤 생각도 분명해질 수 없다.

- ① 인간은 언어 사용 이전에도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 ②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통해 사고를 분석한다.
- ③ 말과 생각은 일정한 관련이 있다.
- ④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문 11. 다음 기사에 나타난 통계를 통해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일본에서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 사는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04년 전국 1만 71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가구 동태 조사를 보면, 가구당 인구수는 평균 2.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인 가구는 28.7%로 5년 전 조사 때보다 조금 증가한 반면, 4인 가구는 18.1%로 조금 줄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의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30 ~ 34살 남성의 45.4%가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령층 여성의 부모 동거 비율은 33.1%였다. 5년 전에 비해 남성은 6.4%, 여성은 10.2% 증가한 수치다. 25 ~ 29살 남성의 부모 동거 비율은 64%, 여성은 56.1%로 조사됐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기혼자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독신으로 부모로부터 주거와 가사 지원을 받는 캥거루족으로 추정된다.

- ① 25 ~ 34살의 남성 중 대략 반 정도가 부모와 동거한다.
- ② 현대사회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만혼 현상이 널리 퍼져 있다.
- ③ 30 ~ 34살의 경우 부모 동거비율은 5년 전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지 않았다.
- ④ ‘캥거루족’이 늘어난 것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 12. 다음은 문장 성분상 결함이 있는 문장들이다. 그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① 외국에 나가면 말은 저절로 배운다는 이유만으로 훌쩍 떠났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다.
- ② 나자프의 질서 회복을 위해 특수부대 병력을 파견했으며, 밤 11시 이후 통금령을 내렸다.
- ③ 결국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일 것이다.
- ④ 회사는 방송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일부를 활용할 방침이다.

문 13. 밑줄 친 색채어의 뜻이 원래의 뜻과 가장 멀어진 것은?

- ① 경거망동하는 것을 보니 씩수가 노랗다.
- ② 어느 누가 들어도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 ③ 말 한 마디에도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 수 있다.
- ④ 밤을 하얗게 새우고서야 겨우 마감 시간을 지킬 수 있었다.

문 14.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쓸 수 있는 글의 주제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 몸이 조금 피곤하다고 해서 버스나 전철의 경로석에 앉아서야 되겠는가?
-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밤중에 붉은 신호등을 지킨 장애인 운전기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까지 써서 돈을 벌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인간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일관된 행위를 해야 한다.
- ② 민주 시민이라면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 ③ 도덕성 회복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 ④ 개인의 이익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규약은 지켜야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5 ~ 문 16]

군청에서는 관 위주 행정의 관행을 없애고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감동 행정’을 펼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가) 특히 군정에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군민과 공직자를 상대로 군민 행복을 위한 ㉠ 참신한 의견을 ㉡ 수렴하고 ‘공직자 변화 노력 ㉢ 선포식’을 열기로 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나) 김 군수는 “공무원들의 변화만이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낡은 사고, 관 위주 행정의 낡은 관행을 우선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전체 공직자가 자기계발과 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 다음 달 정례 회 때 있을 공직자 변화 노력 선포식에서는 전체 공직자가 결의문을 채택해 자기 개혁에 적극 나서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라) 특히 음주운전자 차량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못해 음주운전에 이르게 한 공무원도 사안에 따라 ㉣ 문책할 방침이다.

문 15. 밑줄 친 어휘의 한자 표기로 모두 옳은 것은?

- ㉠ ㉠ ㉡ ㉡ ㉢ ㉢ ㉣ ㉣
- ① 懺新 收斂 宣布 聞責

- [illegible]

- ㄱ. 이는 말레이 민족 위주의 우월적 민족주의 경향이 생기면서 문화적 다원성을 확보하는 데 뒤쳐진 경험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대비되기도 한다.
- ㄴ.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긍정적이다.
- ㄷ. 영어 공용화 국가의 상황을 긍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영어 공용화 실시는 인종 중심적 문화로부터 탈피하여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ㄹ. 그러나 영어 공용화 국가는 모두 다민족 다언어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단일 민족 단일 모국어 국가와는 처한 환경이 많이 다르다.
- ㅁ. 특히, 싱가포르인들은 영어를 통해 국가적 통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어를 수용함으로써 문화적 다원성을 일찍부터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 문 20. 밑줄 친 부분의 말하기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형님 놀부 댁에서 쫓겨나 마을 어구에 당도하니 여러 아이놈들이 밥 달라는 소리가 귀를 찢는다. 그러더니 홍보 큰아들이 나왔으며,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또 어찌하여 이상한 목소리를 내느냐?”

“어머니 아버지, 날 장가 좀 들여주요.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 갑니다.”

홍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더욱 기가 막히더라.

- ①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하면서 유권자에게) “저는 여러분의 충실한 대변인이 되고 싶지 출세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 ② (약속에 늦게 와서 기다리는 친구에게) “미안해, 난 일찍 출발했는데 길이 워낙 막혀서 말이야.”
- ③ (자꾸 그릇을 깨는 동생에게) “아니, 너 혹시 그릇 집에 뭐 잘 보일 일이 있는 거 아냐?”
- ④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 아이에게) “그래도 걸을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

지방직 수탁 문제 경향과 대책

문법 6문제, 독해 8문제, 문학 2문제, 한자 3문제, 쓰기 1문제가 출제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독해 비중이 커졌고, 문제도 다양해진 것이다. 내용파악문제, 단락나누기, 문장순서, 전체 찾기가 각 한문제씩 출제되었다. 수능형 문제에 가깝게 출제된 것이다.

독해 훈련을 많이 한 수험생은 시간 조절도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자도 독해와 관련되어 출제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문법도 단순 암기가 아닌, 생각하는 문제 중심으로 출제되었고, 문제 유형도 수능에서 내는 문법 문제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재를 단순하게 회독수만 반복하는 단순 암기식은 공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리학습과 체계적 독해 훈련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서울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거의 같은 교수들이 출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설>

1.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이다. ㄱ, ㄴ, ㄷ은 발음과 표기가 같다. ㄷ은 [타향사리], ㄹ은 [함경늪] ㅁ은[부치다]로 발음된다.

정답 ①

2. ① 기여하고저 -> 기여하고자 ② 퍼분다 - 퍼붓다 ③ 안성마춤 -> 안성맞춤, 샅쟁이 -> 살쟁이, 더우기->더욱이, 지그잭 -> 지그재그 ④ 굶주리다 -> 굶주리다, 빠리 -> 파리

정답 ③

3.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에 맞는 어휘도 택할 수 있다. 단순 어휘 문제가 아니고 독해를 겸한 어휘문제다.

②의 ‘내둘리다’는 ‘내두름을 당하다’의 의미다. 앞뒤 문맥을 볼 때 둘러 싸이다의 뜻인 ‘둘리다’가 맞다.

정답 ④

4. ② ‘곧’은 앞뒤 내용이 같아야 한다. 열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를 써야 한다. ③ ‘때문이다’에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으로 고쳐야 한다. ④ 앞뒤 내용이 반대다. ‘그러나’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증권사도’를 ‘증권사는’으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답 ①

5. ‘적반하장’을 택한 학생이 생각보다 많다.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면 ‘적반하장’이 좋겠지만,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고 있으니 ‘건강부회’가 맞는 답이다. ③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④ 남의 잘못을 나의 교훈으로 삼는다.

정답 ②

6. 자주 나오는 한자는 특별히 외워두는 것이 좋다. ‘타락(墮落)’이 올바른 표기이다. 독해 공부할 때 한자도 겸해서 외우도록 하자.

정답 ①

7. 주어진 글을 정리하자 대립적인 글이기 때문에 시민권은  표 인권은  표를 하면서 읽고, 읽으면서 답지를 지워보자. 시민권 중심(분리, 내다보기) - 인권중심(포괄, 들여다보기)로 정리된다. 동질성, 이질성 조장은 본문에 없다.

정답 ③

8. 주어진 글을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관한 글이다. 즉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①, ②, ④는 다른 사람을 따른 행동이고 ③은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답 ③

9. ㉠까지는 우리나라와 유럽의 단백질 섭취 방법이 다르다는 점으로 이야기를 도입했고 ㉡부터는 예를 제시하면서 구체화하고 있다.

정답 ②

10. 전제를 찾는 문제는 먼저 주제를 찾고 그것의 판단 근거를 찾으려 한다. 주어진 글의

주제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생각은 끝없이 불분명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이다.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말과 생각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③

11. 답지 먼저 보면서 핵심어를 표시한 뒤에 지문을 읽자, 읽으면서 관련이 있는 것을 지우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 ① 25~29살은 64%, 30~34살은 45.5%가 부모와 동거한다.
- ② 상당수는 독신으로 부모의 지원을 받는다.
- ③ 증가율을 빼면. 5년전 남자는 39%, 여성은 22.9%이다.
- ④ 직장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은 본문에 없다.

정답 ④

12. ①, ②, ③은 모두 ‘누가’에 해당하는 주어가 빠져 있고 ④는 ‘어디에’에 해당하는 부사가 빠져 있다.

정답 ④

13. 가장 재미있는 문제다.

- ① 짝은 노래질 수 있다. ③ ‘멍’은 퍼렇다 ④ 밤을 지새우고나면 밝은 아침이다. 하얗다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② 거짓말을 새빨강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면에서 거리가 멀다.

정답 ②

14. 주어진 글에서 핵심어를 찾아보자. ‘경로석’, ‘신호등’, ‘정당한 방법’과 관련 있는 내용을 찾아보자. ‘규약’이 가장 맞는 답이다.

정답 ④

15. 모의고사에서 자주 다루는 한자이다.

- ㉠ 斬新 ㉡ 收斂 ㉢ 宣布 ㉣ 問責

정답 ②

16. (가) (나) (다)는 감동행정을 위해 공직자 변화 노력 선포식을 열기로 하고 공무원 의식 전환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겠다는 내용이다. (라)는 내용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정답 ④

17. 신문이 진실보도를 위해서는 진실을 왜곡하려는 권력과 이익집단의 구속과 억압 논리로 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다.

정답 ①

18. (가) 학문에 정진하자 (나) 부모에 효도하자 (다) 노래를 불러서 시름을 잊자 (라) 천성을 지키며 살자 (가) (나) (라)는 교훈적 의도의 작품이고 (다)는 개인 서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정답 ③

19. 인접단락을 찾으려 하자. 그리고 지시어와 접속어에 주의하자

ㄷ(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 수립) + ㄴ(이점은 긍정적이다) 따라서 답은 ②, ④로 압축된다.

ㄹ(싱가포르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 + ㄱ(말레이는 뒤쳐진 경험) 따라서 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20.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상대방을 핑계로 삼고 있다 ①번도 자신의 출세욕을 숨기고 유권자를 핑계로 삼고 있다.

정답 ①